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남도의 비비추를 우리 곁 화단에서 볼 수 있다면

식물을 그림으로 기록하기 위해 나는 숲과 들 그리고 식물원과 공원, 정원과 육묘장까지 식물이 있는 모든 장소를 다닌다. 최근 우리나라에 식물 세밀화가 대중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개인 육종가와 정원가로부터 개인 소유지의 특정 식물을 그려 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연유로 방문하는 정원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식물이 있다. 소나무, 산딸나무, 목련 그리고 맥문동과 비비추다.

이 중 비비추는 추운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 정원에서 제 역할을 다 하는 식물이다. 보편적인 식물은 꽃과 열매가 달리는 시기에만 우리 눈길을 사로잡지만, 비비추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잎은 겨울을 제외한 계절 내내 정원을 빛낸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정원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풀이 되었다.

화훼 시장에서는 비비추를 보통 호스타라고 부른다. 비비추의 속명이 호스타이기 때문에 둘은 같은 식물이다. 비비추속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러시아, 사할린에 20여 종이 분포한다. 모두 동아시아에만 분포하는 동아시아 특산 식물이다. 이들이 우리나라 정원에 많이 식재되는 이유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추위에 강한 데다 그늘과 습한 환경을 좋아하며 오랜 기간 다채롭고 푸르른 잎 풍경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지금 도시 화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옥잠화 역시 비비추속 중 한 종이다. 옥잠화란 국명만으로는 비비추와 크게 관계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옥잠'은 비비추의 중국명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며칠 전 친구가 옥잠화를 가리켜 왜 저 식물은 매번 꽃이 시들어 있냐 내게 물었다. 이들 꽃이 늘 시들어 보이는 것은 식물 탓이 아니라, 우리가 늘 옥잠화가 꽃잎을 오므리는 시간에만 옥잠화를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늦은 오후에 꽃을 열고 오전이 되면 꽃을 다시 오므린다. 혹여나 옥잠화 꽃이 늘 진 것처럼 보인다면, 밤 혹은 새벽에 꽃을 관찰해 보길 바란다.

비비추속 식물들은 봄과 여름, 가을 내내 푸르른 잎을 펼친다. 이 잎은 크기도 색도 종마다 다르다. 잎의 지름이 1미터에 가까운 거대한 잎의 품종부터 5센티가 되지 않는 작은 잎 품종까지, 그리고 노란색·연두색·진청록색·흰색 등 잎색도 다채롭다. 우리나라 야생화는 소박하다는 편견 때문인지 비비추를 외국 식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으나, 우리나라 고유의 비비추가 여섯 종이나 있다.

한라비비추, 좀비비추, 다도해비비추, 흑산도비비추, 일월비비추, 주걱비비추. 이 중 주걱비비추를 제외한 다섯 종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한국 특산 식물이며,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흑산도비비추와 다도해비비추는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아주 귀한 지역 식물이다.

나는 흑산도비비추를 특히 좋아한다. 잎에서 유독 광택이 나며, 전라남도 흑산도와 홍도에만 분포한다. 7~8월 보라색 꽃이 곧은 꽃대에 풍성하게 달린 모습 또한 아름답다. 다도해비비추는 전남 여수, 완도 보길도를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꽃이 7~8월에 피어 다른 종보다 개화가 느린 편이다.

비비추는 종 식별이 어려운 식물이다. 그래서 학자마다 비비추속에 관한 의견이 천차만별이다. 몇 종의 식물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형태 식별이 어렵다는 것은 식물 세밀화를 그리기에 까다로운 식물이란 이야기이기도 하다. 원종 상황이 이런데다 세계적으로 3000여 품종으로 육성되어, 비비추 연구는 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비비추속을 그림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에는 약 200여 품종의 비비추가 유통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우리나라 자생 비비추가 아닌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이라는 점이다. 언젠가 행정가이자 학자인 은사님이 우리나라의 정원 문화 확산 계획의 첫 번째 목표는 우선 많은 정원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그 정원에 외국산 식물이 아닌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식재하도록 하는 것이라 이야기한 적이 있다. 지금 우리 곁의 비비추는 대부분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이지만, 지금처럼 우리나라 자생식물 연구를 지속한다면 언젠가는 학교와 아파트 화단과 공원, 정원, 길가에서 흑산도비비추와 다도해비비추와 같이 우리 지역명을 가진 비비추를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

〈식물 세밀화가〉

의료칼럼

임플란트 건강하게 오래 쓰기

구민영
조선대치과병원 치주과 전임의

잇몸병, 충치, 파절 등 다양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치아를 뽑아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치아를 발거할 경우 해당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양한 치료법이 사용된다.

그중 임플란트는 기존 보철치료나 틀니에 비해 식사나 생활이 편하고 인접 치아를 삭제하지 않아서 보편적인 치료가 됐다. 임플란트란 뼈와 잘 붙는 티타늄이라는 재료를 치아가 없는 부위에 심어 치아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현재 치과 의술이 많이 발전해 대체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완성도와 환자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환자의 임플란트는 과거보다 더 오랜 기간 구강 내에서 유지돼야 한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관리와 치료가 더욱 중요해졌다.

잇몸 질환은 세균으로 인해 시작되며,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나아가 잇몸 뼈까지 흡수시킨다. 많은 환자들은 임플란트는 영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잇몸 질환이 발생하며, 이를 방치하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임플란트 파절 등 임플란트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임플란트는 주변 잇몸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 생기는 질환을 통틀어 임플란트 주위 질환이라고 한다. 임플란트 주위 질환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과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나눌 수 있다.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은 잇몸 부위에 국한해 염증이 일어난 상태를 의미하며, 임플란트 주위염은 잇몸 부위를 넘어서 잇몸 뼈까지 손상된 경우이다. 임플란트 주위염 유병률에 대한 보고는 다양하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56%의 환자와 43%의 임플란트에서 발생한다. 많은 임플란트에서 주위염이 발생할 수 있고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해 잇몸 뼈까지 손상된 경우는 그 전 상태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오래 쓰기 위해서는 우선 올바른 양치 습관 및 치간 칫솔 사용이 중요하다. 임플란트는 뿌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가늘고 보철물인 치아 부분이 커서 잇몸 틈새로 음식물이 잘 끼고 자연 치아보다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 후 올바른 양치 습관이 필요하며 치간 칫솔, 치실 등의 사용으로 잇몸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 혹은 각종 보조 기구 특히 치간 세정기 수압을 이용하면 치아의 옆면과 치은열구(잇몸 주머니)에 끼어 있는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두 번째, 정기적인 검진 및 스케일링을 통해 임플란트 주위염을 조기에 예방·치료해야한다. 임플란트 주위염의 초기에는 잇몸병과 비슷하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구취가 있을 수 있으며 붓고 고름이 나올 수도 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보다 염증에 취약하며 진행이 빠르고 통증이 없는 인공 치아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잇몸 질환이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이 있는 환자는 치과에서 치료받아야 하며,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필수이다.

세 번째, 임플란트 시술 전 잇몸 질환 치료 및 관리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시술 전에 심한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임플란트 주위 질환에 취약하다. 잇몸 질환이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잇몸질환에 관여하는 세균이 더 많이 번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잇몸 질환이 있는 환자는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 전 잇몸 질환의 치료 및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흡연·당뇨 등 임플란트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특히 당뇨는 잇몸 질환뿐 아니라 임플란트의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혈당 조절이 잘되는 환자의 경우 정상인과 차이가 거의 없기에 임플란트 시술 전후 혈당 조절이 중요하다. 흡연 역시 임플란트 주위염에 악영향을 주며 시술 전후 임플란트 치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금연을 하는 것도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골이식 및 식립 위치 선정 등에 의료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식립 후 환자의 관리에 따라 임플란트의 수명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후 관리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기 고

'통계의 날'에 되돌아보는 국가 통계의 중요성

김대호
호남지방통계청장

얼마 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종영되었다. 이 드라마는 '힐링 드라마'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었고, 드라마에 나왔던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되는 등 영향력이 상당했다.

이 드라마는 첫 회 0.9% 시청률을 기록했으나, 회가 거듭될수록 기록을 갱신하며 마지막 회에는 17.5%라는 최대 시청률을 기록했다. 신규 케이블방송사라는 조건에서 이례적인 기록을 세운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브랜드 평판 분석에서 드라마의 주연인 박은빈 배우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그 영향력을 더욱 확실히 입증했다.

우리는 시청률, 브랜드 평판 지수 등 통계를 통해 이 드라마가 다른 드라마보다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으며,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 알 수 있었다. 이는 비단 드라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인기 있는 식당과 메뉴, 유행하는 패션은 무엇인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소위 '핫 플레이스'는 어디인지까지도 우리는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령대·성·지역별 등으로 세분화된 통계도 함께 제공되어 자신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트렌드까지도 알 수 있다. 이런 통계는 개인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드라마를 고르는 등의 다양한 선택에 도움을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파악해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계는 무엇일까? 바로 국가통계이다.

최근 뉴스에 연일 보도가 되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 통계가 있다.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이다.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률로 인해 소비자 물가 통계는 신문, 뉴스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다.

우리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통계를 통해 경제가 고물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소비자 물가 통계를 활용하여 유류세 인하, 금리 인상, 추석 물가 대책 마련 등 물가 안정을 위하여 여러 경제 정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국가 통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도 앞으로의 추세도 파악할 수 없어 무엇이 문제인지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 통계는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나침반이다.

통계의 중요성은 경제 분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인구·사회·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계가 활용되고 있다. 그 예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 통계를 활용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통계를 활용하는 등 각종 정책 수립에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광주·전남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호남지방통계청과 협업하여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그 예로 지역특산물 차별화를 위해 광양·장흥·해남 등이 특산물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 지원 사업 지역 정책 수립을 위해 광주·곡성·여수 등이 청년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오늘 9월 1일은 통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통계의 날이다. 1896년 9월 1일은 고종이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호구 조사를 처음 도입한 날로 이때를 근대 통계의 시발점으로 보아 1995년 9월 1일이 통계의 날로 제정되었다.

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매년 통계의 날에 적극적인 조사 협조로 국가 통계 발전에 기여한 통계 응답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대통령 표창을 받는 (유)동아통운과 원진알미늄(유)를 비롯해 다섯 개의 사업체와 아홉 개의 가구에 포상한다.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응답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올해로 28주년이 되는 통계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호남지방통계청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품질의 통계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독자분들께서도 오늘만큼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

社 說

긴축 재정에도 늘어난 시도 국비 잘 지켜내야

정부의 재정 긴축에도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 반영액이 올해보다 상당 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섰음에도 첫 국비 확보에서 선전한 셈이다.

정부는 그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광주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은 3조 2397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사상 처음 3조 원 시대를 연 올해 반영액보다 940억 원(3.0%) 증가한 것이다. 국비가 반영된 주요 사업은 공공개방형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 환경 조성(70억 원)과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563억 원), 전기차 국민 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10억 원) 등 전략 산업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1847억 원),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1084억 원) 등 기반 시설 분야다.

전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8조 2030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 예산안(7조 5131억 원)보다 9.2% 늘어난 규모다. 특히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3억 5000만 원), 그린수소 에너지 섬 연구용역(2억 원),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역사문화권 정비(17억 원)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풍력발전·그린수소와 문화·관광 분야 신규 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내일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까지 3개월간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도와 지역 정치권은 이 과정에서 애써 확보한 국비가 누락 또는 삭감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내년 살림은 국비 예산 확보에 달려 있는 만큼 정부안 미반영 사업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항생제 남발하는 병원들, 환자 건강 우선해야

광주·전남 지역 병원들의 수술 전후 항생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그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998개 병원의 2020년 4분기(10~12월)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충수(맹장염) 절제술 등 18개 수술을 대상으로 최초 투여 시기와 항생제 선택, 투여 기간, 의무 기록 일치율 등 네 개 지표를 평가해 1~5등급으로 구분했다.

평가 결과 광주 소재 50개 병원 중 전남대병원과 빛고을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대학병원 세 곳만 1등급을 받았다. 전체 병원 가운데 78%(41개 병원)는 3등급 이하를 받았다. 또한 전남에서는 총 46개 병원 가운데 화순 전남대병원과 여수 백병원 두 곳만 1등급을 받았고, 42개 병원(91.4%)이 3등급 이하를 받았다.

1등급을 받은 광주 지역 대학병원들은 수술 전 한 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투여하고, 각 수술 종류별로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하점인 5등급을 받은 병원들은 수술 한 시간 이전은 물론 수술 완료 24시간 이후에도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수술 부위에 부적합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수술 전후 항생제 사용은 감염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 하지만 오·남용할 경우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 박테리아'를 만드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슈퍼 박테리아가 늘수록 수술·치료나 작은 상처로도 세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커진다.

그럼에도 항생제 남발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병원들에 대한 사용 적정성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은 환자의 건강이다. 의료진 스스로 수술 시 투여 기준을 준수해 더 이상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꼼수 전성시대

세상이 어지러우면 자신의 계책과 계교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려는 자들이 넘쳐난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이들을 책사(策士)라 불렀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이가 소진과 장의다. 소진은 전국 칠웅 가운데 가장 강한 진나라를 제압하기 위해 나머지 육국이 합종해 맞서자고 해 육국의 재상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소진의 동문인 장의는 그와 반대로 진나라가 육국과 각각 동맹관계를 맺어 합종책을 깨뜨려야 한다는 연횡책을 주창했다.

범수라는 인물도 있었는데, 그는 위나라에서 쫓겨난 뒤 진나라에 중용돼 원교근공책, 즉 먼 나라와 수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정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나라 소양왕은 이를 받아들여 중국 통일의 기반을 닦았다. 세 치(약 10㎝) 혀가 백만대군보다 강하다는 찬사를 받은 조나라 모수도 있었다. 그는 초나라 원조를 이끌어내 진나라의 공격으로 멸망 직전까지 갔던 조나라를 되살렸다.

국가와 군주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던 책사는 때때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잔꾀를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 시대를 응시하며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의 능력에 국가의 존폐가 걸려 있었기에 각국은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책사들 역시 군사 운용만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며 춘추전국시대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요즘도 '세 치 혀'를 갖고 방송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자기 주장을 펼치는 소위 논객들이 있다. 그중 일부는 정부나 정당 관계자의 눈에 띄어 자리를 얻는 등 출세의 길을 걷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진보나 보수라는 이념의 틀에 갇혀 상대방의 결점만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주목을 받기 위해 검증된 바 없는 논거를 들이대는 등 오히려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치판도 최근 정공법이 아니라 얍삽한 방법으로 곤경을 피하거나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에 너무도 익숙해진 듯하다. 특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분초를 다퉈야 할 당 지도층 인사, 정부 고위관계자 등까지도 갖가지 꼼수나 말장난으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정치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